

## 수 국

“아이 미안해. 오래 기다렸구먼…….”

인사 차례가 아니고 진정 미안해 하면서 명희는 바쁘다. 연방 식모에게

“순이 어머니, 고기허구 생선은 따루따루 소쿠리에 담구, 야채는 다듬어 씻어 두세요. 아, 그 빵가륜 쏟아지지 않게 유리 항아리에 옮기구.”

하고 분부를 내린 후 새하얀 옥양목 적삼으로 갈아입고 정순이와 마주앉으며 획 숨을 내뿜는다.

“글쎄 새우가 없어서 한참 헤매느라구.”

하며 상기된 얼굴을 귀엽게 찌푸린다.

정순이는 문득 ‘귀여운 부인!’——이런 생각이 든다. 언제나 명랑하고 아름답고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

“아 참 이 댁 주인 양반 새우 프라이를 쥔 좋아하셨지. 아무렇든 현부인이야. 호호…….”

웃고

“수국이 탐스럽군.”

하며 뜰에 시선을 옮긴다.

“그럼 우리 집 자랑인데.”

명희는 못에 걸렸던 행주치마를 날씬한 허리에 두르며

“십 년 공들인 게 아뉴.”

하며 친구의 얼굴을 돌아본다.

“십 년?”

“그럼 오늘이 결혼 십 주년 기념일이니깐 꼭 십 년이지.”

“벌써 그렇게 됐던가? 그런데 명희 여지껏 그 때 그 모습이야. 귀여운 젊은 아내!”

하며 어깨를 안는 것을 가볍게 피하고

“실없는 소리를…….”

소녀처럼 얼굴을 붉힌다. 마음속을 지나는 약간에 움직임이라도 비쳐 내듯 얇고 민감한 피부다.

“허지만 신혼 부부가 가정을 가지고 처음 사 온 꽃이 수국이라니.”

“나쁠 거야 있수?”

“수국의 ‘꽃말씀’ 알지?”

“오, 변심이라구.”

“응.”

“꽃빛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뜻을 붙였는지는 몰라두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넓고 점잖은 입사귀, 많은 꽃봉들이 모여 탐스러운 송이송이를 이루고 구름같이 피어오르는 아름다움, 미묘한 색조——그리 화려치는 않으나마 여름이 가도록 꾸준히 화단을 지켜 주지 않우? 충실한 주부같이.”

“글쎄.”

“색조의 변화는 필연적인 과정이지 경박한 변심은 아닌 것 같아.”

식모가 수돗가에서 소리를 지른다.

“애기 어머니 다 씻었는덥시요.”

“반딧간에다 갖다 놓우. 우리두 그리루 갈 테니.”

큰 소리로 대답하고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니 아직 열한 시다.

“일곱 시에 모이게 했으니 시간은 넉넉해.”

“누구누구 청했지?”

“XX서장 김정목 씨 부처, 소아과 박사 유희국 씨 부처, 포목상 심태훈 씨 부처, 중학교 교사 장명식 씨 부처, 모두 혁이 아빠 고향 국민 학교 동창생들이야.”

“모두들 오실까.”

“그럼. 우리가 동창생들 중에서 제일 나중에 결혼을 했다우. 그 때 서울에 있던 친구들이 모여서 우릴 축하해 줬었지.”

“감개가 무량하겠네. 그래 오늘 모이기루 된 분들이 그 때 그분들야?”

“응 그런데 유희국 씨만은 그 때 그 부인허구 이혼허구 작년에 새루 결혼했대.”

“애기 어머니 푸성귀 씻어 갖다 뵈시유.”

또 식모가 소리를 친다. 두 사람은 반빗간으로 내려갔다.

명희의 메뉴는 다채로웠다. 각색 재료를 색깔을 맞추어 꽃같이 담은 신선로, 도미를 통으로 찌고 각색 고명을 얹은 생선찜 가리찜 새우 그라탕 탕수육은 더운 요리고, 찬 요리로는 파란 레타스를 깔고 담은 사라다 편육 제육 족편이 있었다. 실과에는 제비꽃빛 컷 글라스에 어울리는 크림빛 수밀도, 눈같이 흰 접시에는 피처럼 빨간 양딸기——초여름 밤같이 신선하고 달콤한 칼피스——새하얀 식탁보를 덮은 식탁은 몇 개나 켜 촛불 아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다정스럽게 손님들의 식욕을 만족시킬 것일까.

명희는 진정으로 행복스러운 것이다.

그녀에겐 자기를 사랑하는 성공한 남편이 있었다. 묵직하고 든든하고 사업에는 날완이나 인간적으로는 온후한 남편, 그리고 그들에게는 귀여운 자녀가 있는 것이다. 장남인 여덟 살 나는 혁이는 담임 교사의 말을 따르면 과학적 소질이 풍부하다. 무엇이든 소홀히 보는

일이 없고 질문이 많고 연구심이 깊었다. 여섯 살 되는 딸 이나는 꼭 인형같이 귀여운 계집아이로 장래의 미인이 약속되어 있었고, 음성이 은방울을 흔들 듯 곱고 아름답다. 꼬마등이 심술쟁이 진이는 귀여운 폭군이다.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에게 명희는 너무나 보고가 많다. 오늘은 혁이가 산수에 백점을 받았다는등, 진이가 '나쁘다'라는 말을 '바쁘다'라고 했다는등, 지나가던 화가가 이나를 보고 모델로 빌려 달렸다는등 화제가 많은 것이다.

남편은 옷을 벗으며 빙그레하기도 하고 소리를 내어 웃기도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들은 행복하였다.

남편 강민호는 꽤 규모가 큰 제분 회사의 사장으로 물질적으로도 그들은 불만이 없었다. 결혼 후 십 년이 되건만 그들에겐 일찍이 권태기라는 기간이 없었다. 건설과 행복에의 의지가 공동의 이해와 의욕 아래서 굳게 그들을 결합시켰던 것이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꿈이 남 못지않았건만 실상에 있어서는 명희는 결국 '인형의 결혼'을 한 것이었다. 사랑도 없고 상대에 대한 견해도 없이——그저 부모의 딸차식으로서 그들의 영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자신을 운명에 맡겼던 것이다.

남편은 무엇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장인에게 촉망을 받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도록 평범한 일개의 가난한 청년이었다.

결혼 당시 명희가 제일 크게 느낀 환멸은 남편의 무신경한 태도였다. 그는 너무나 거칠었다. 여자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감정의 섬세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의 금선을 울려 줄 수가 없었다. 너무나 행위에만 중점을 두어서 몽상적인 아내의 꿈을 깨뜨려 갔다.

명희는 주저앉고 자기를 불행한 아내로 자처했고 그 불행한 아내라는 이름에 달고도 쓰라린 자위를 가졌던 것이다.

결혼 후 석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벗어 버린 양

복에 솔질을 하고 있었다. 소탈한 남편은 주머니마다 무엇이든 집어 넣는 버릇이 있어서 양복 모양을 흉하게 만들어, 이것도 아내의 눈에 거슬리는 한 가지가 되어 있었는데 주머니에서 나온 신문지 쪽지가 너무 많기에 명희가 무심히 그것을 펼쳐 보니 그저 휴지로만 알았던 그 신문지 쪽지가 모두 위병의 약 광고였었던 것이다.

명희는 무엇으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동을 느꼈다. 위병약 광고——그는 오랫동안 위병으로 신음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신문에 나는 광고에까지도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여지껏 무신경하고 무뚝뚝하고 이기주의자로만 알던 남편의 가슴에 그러한 극진한 효성과 섬세한 주의심이 깃들이고 있었을 줄이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명희는 부끄러웠다. 여지껏 남들이

“색시는 이쁘구 신랑은 거세구.”

하는 소리에 얹은 여자의 소견으로 부지중 자기가 무슨 희생이나 된 듯이 생각해 오지 않았던가.

그날 밤 명희는 남편의 품속에서 비로소 행복을 느꼈던 것이다.

가난한 살림에 쪼들리면서도 그들은 평온했고, 몇 번이나 거듭하는 실패에 거의 절망하다가도 또 희망을 가졌다. 인생이란 조물주의 장난일지도 모르나 각자에 있어서는 단 한 번 허락된 실험이 아니겠는가. 참답게 싸우고 살아서 삶을 극복하고 싶었다. 비록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가 생활의 안정이란 가장 비근하고 오죽잖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도달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갖고 싶었다.

그들의 길은 결코 순조롭지 못하였으나 언제나 남편의 그늘에는 가냘프나마 아내의 정성과 노력과 사랑이 있었고, 아내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남편에의 미더움이 있었다.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자라고 불리는 남편을 가진 아내는 자신의 행복이 너무나 커서 문득 두려운 생각조차 드는 것이다.

사실 취미 있게 훌륭하게 꾸민 깨끗하고 번듯한 집에서 부부가 서

로 존경과 이해 속에서 귀여운 자녀들의 성장을 즐기며 산다는 것은 확실히 인생의 낙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윽고 그들은 아직 젊었다. 따라서 희망도 컸다.

“아니 그릇은 언제 이렇게 사 모았어.”

찬장문을 열어 본 정순이는 눈을 크게 뜬다. 그녀는 여학교 시대부터 친동생같이 사랑해 온 명희의 점점 늘어가는 살림이 대견한 것이다. 질투하기에는 너무나 상대가 천진 난만하였고 시기하기로는 너무나 그녀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실상 일정 말기 한창 어려운 전쟁 중에 냄비 하나 풍로 하나 공기 몇 개로 시작한 그들의 살림에 아내로서 얼마나 애를 태우며 그 기명들을 장만해 왔던 것인가. 무심한 그 그릇의 하나하나에 알뜰한 아내의 땀과 정성이 맺어 있는 것이다. 커피 차종 하나, 수프 접시 하나, 컷 글라스 하나에도 그녀에게 속삭이는 추억이 어려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기명들을 사랑했다.

“어쩌다 깨뜨리는 일이 있으면 내 살이나 깬 것처럼 정말 육체적 고통을 느낀다우.”

하고 명희는 웃었다.

정순이는 능란하게 놀리는 명희의 칼질하는 손을 보고 얼굴에 비하여 펍 늙고 억센 손이라고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명희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혼자 웃다가 “언니 나 얘기 하나 할게. 태평양 전쟁 중에 오늘 오실 손님들이 우리 집에 모인 일이 있어.”

하며 말을 이었다.

“등화 관제를 할 때 아뉴? 방공막을 치구 전등을 검정 형겅으로 가리구 무슨 비밀 회의나 하는 것처럼 모여 앉아 술을 마셨어.”

“난 심부름을 해 가며 안방에서 편물을 허구 있었지. 그런데 어디 선지 누린내가 나는 것 같아 두리두리 살펴보니깐 건넌방에 연기가 자욱하지 않겠수.”

“웬일인가 허구 건너가 보니까 글썽 전등을 가린 검정 형겔에 불이 붙어 타고르고 있는구료.”

“야단이 났지. 모두들 어쩔 줄을 모르구 와야 떠들구 쳐다보구만 있는데, 혁이 아빠가 타고르는 코드를 잡아 빼서 뜰에다 던져 붙은 잡았지만 주석은 원통 수라장이 되어 버렸지.”

“내가 건너가서 술상을 치우고 촛불을 켜 놓구 다시 놀게 되었는데 김정목 씨가 하는 말이

‘이 사람 전등을 가리는 것은 방공 방화가 목적인데 이런 일이 나에게 하면 어떡허나.’

그러자 심태훈 씨가

‘그러나 요즘같이 천을 구허기 어려운 세상에 참 안됐는데.’

허구 형겔 탄 것을 딱해 하는구먼. 뒤이어 유희국 씨가

‘부인 놀라셨지요.’

허구 나를 돌아보는데 장명식 씨가

‘모두들 왜 이 야단들이야. 어서 자 잔이나 비우게.’

하면서 술을 따르는구료.”

명희는 호호 웃고

“난 나중에 그 말을 생각허구 사람이란 무의식중에 하는 말에 가장 자기를 잘 표현하는 것이라구 감탄했다우.”

“유희국 씨란 이가 부인과 이혼했다는 소아과 박사지?”

“응 참 이상해요. 그인 페미니스트구 부인을 무척 사랑했었는데.”

“그래두 이유가 있었던 게지.”

“부인두 우리 보기엔 훌륭한 분이었는데.”

“꼭 무슨 결점이 있어서만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맺게 되는 건 아니니깐. 부부간의 파탄이란 단순히 마음이 변한 것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깐.”

하고 정순이는 한숨을 쉰다. 추월이라는 기생과 곡절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남편의 아내로서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 자신까지 더러워진 듯한 굴욕감에 몸이 떨리는 것이다. 그 불순한 환경에서 뛰어나오려고 거뭇거뭇 생각해 보는 것이나, 안타깝게도 문제는 용기가 아니고 힘이였다. 남편의 보호를 벗어난 자기를 냉정하게 검토해 보면 생활 능력이 전무한 일개의 연약한 여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뿐더러 자식들을 생각하면 자기와 남편 사이에 건네진 것이 비록 썩은 줄이라 할지라도 아주 끊어 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내란 위치가 그렇게두 불안허구 무력한 것이라면 누가 결혼을 허겠수?”

명희는 계란을 풀던 손을 멈추고 친구의 얼굴을 쳐다본다.

“허지만 그것이 사실이니 어떡해!”

정순이는 씹어 뱉듯이 말하고

“이명옥이 알지? 열렬한 연애 결혼을 한. 개가 요즘 이혼했대.”

“명옥이가? 설마.”

“나두 처음엔 깜짝 놀랐어.”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깐 기가 맥히지. 원래 남자란 마음이 영똥한 데다가 요즘 세상에 여자라 접촉하는 기회가 너무 많단 말야.”

“왜 그렇게 모든 것을 악의로만 해석허려 들우.”

“그야 명희 같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절대로 탈선할 염려는 없지만 여자란 누구를 막론허구 본질적으로 유혹하는 존재라구 난 생각해.”

“너무 과언이 아닐까.”

“왜! 진리지 뭐. 내 자신두 그런 일이 있거든. 여자란 남자를 유혹함으로써 잔인한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럴까?”

“그럼 내가 젊었을 때 어머니 마음에 꼭 드는 신랑감이 있었는데, 내겐 이미 리혜 아빠란 사람이 있어서 결혼할 의사는 추호만치도 없었어. 그래두 맞선이라두 보라구 허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체허구 따라

갔는데, 난 그 때 아주 공들여서 곱게 화장을 허구 갖냈어.”

“언니두.”

“저쪽에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야단이 났었지.”

“호호…….”

정순이는 웃지 않고 공연히 파 껌질만 필요 이상으로 마구 벗겨 버린다. 그 때 자기가 조롱을 하다시피 한 그 사람, 우연한 기회에서 알게 된 그 사람의 누이의 입에서 자기 자신이 아직도 그 사람의 가슴에 살아 있는 것을 알고부터 그녀는 괴로운 것이다. 남편의 사랑을 지니지 못하고 일개 기생에게 그를 빼앗긴 비참한 아내인 자기가 한 남자의 가슴에 영원의 여성으로 살아 있다는 것은 너무나 빈통그러진 운명의 장난이었다. 실로 영원한 사랑이란 이별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정순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혁이와 이나가 뛰어들어왔다. 아이 보는 계집애 등에서 진이는  
“엄마 엄마.”

하고 팔을 내두른다.

명희는 수밀도를 하나씩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진이 이마에는  
입까지 맞춘다.

귀여운 아기들——그녀의 입가에는 장난꾸러기 소녀 같은 미소가  
떠도는 것이다.

저녁에 여럿이 모였을 때 개회사 대신 ‘홈 스위트 홈’을 남편과 자  
기와 혁이 이나가 합창할 계획이었다. 흥허물없는 친구들 앞에서 즐  
거운 가정을 피력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것 같았다. 음치(音  
痴)인 남편에게 이 곡을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웃고 애를 썼던 것인  
가. 그녀는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뎅 뎅 뎅——

대청벽에 걸린 묵직한 시계가 점잖게 여섯 시를 쳤다.

찬 요리들은 다들 깔끔하게 접시에 담기고, 뜨거운 요리는 각기 냄비 속에서 김을 올리며 손님을 기다리고만 있었다.

명희는 아이들을 불러들여 법석을 하며 세수를 시키고 새옷을 갈아입힌 후, 자기도 소쇄하고 곱게 단장을 하였다.

연지도 여느 때보다 질게 칠하고 눈썹도 또렷하게 길게 그리고 입술의 루주도 진하게 발랐다. 옷은 크림빛 레이스 치마 저고리를 입게 하고 손가락에는 옷빛에 어울리도록 아레키 산드리아 자수정 반지를 꼰다. 윤이 자르르 흐르는 머리에는 자색 리라를 꼰다.

“참 예뻐. 마약 결혼식이 끝난 신부같이 청신허구 아름다워.”

감탄하듯이 말하는 정순이 쪽으로 명희는 거울 속에서 웃어 보이고 자기도 자신에게 만족을 느꼈다.

그들은 응접실로 들어갔다.

활짝 열어제친 창으로 초여름의 향기로운 바람이 달콤한 아카시아와 라이락 꽃향기를 품고 불어 와서 새까만 피아노 위에 놓인 고려청자에 꽃힌 백장미 꽃잎을 소리 없이 떨어뜨린다.

책장 위에 아틀라스가 지구를 지고 있는 형용을 한 시계는 십 분 전 일곱 시를 가리키고 있다.

지리리——

전화가 온다. 명희는 수화기를 들었다.

“네 네 네 당신이에요? 왜? 아이 어떡허나. 네 네 그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세요.”

수화기를 놓은 명희의 얼굴에 그늘이 지나간다.

“혁이 아빠한테서지. 왜 늦으시겠대?”

“응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겠대.”

“하필 오늘!”

“헐 수 없지.”

리——

이번에는 현관 전령 소리다. 그는 뛰어나갔다.

“어서 오십시오.”

제일착은 유희국 씨다.

“안녕하십니까.”

부드러운 싸는 듯한 음성이다. 남편보다 엄청나게 젊은 부인은 생긋 웃고 고개만 숙인다.

“진이는 요즘 건강하지요?”

“네 선생님 덕택으루.”

소아과 의사라 명희는 남편의 친구라기보다 아이들의 주치의로서 유희국 씨하고는 가까운 사이다.

“아직 아무두 안 왔구먼요.”

소파에 걸터앉으며 추사의 액자에 시선을 던진다. 유희국 씨는 의사의 입장에서 명희 같은 어머니를 환영한다. 자녀의 건강에 새심한 주의를 하는 젊은 어머니——

시계 바늘이 꼭 일곱 시를 지시했을 때 또 현관의 전령이 울렸다.

현관으로 뛰어나간 명희를 보고

“일곱 시 정각이지요.”

장명식 씨는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자못 빠긴다. 옆에서 부인이

“시간 엄수는 문화인의 상식인데 새삼스레 뽐낼 게 어땀어요?”

하고 툭 쏘아 모두 ‘아하하…….’ 웃었다.

광대뼈가 나오고 눈등이 뽀소소해서 미인은 아니나 명랑하고 농담 잘 하고 부지런한 재미있는 부인이다. 장명식 씨는 주인이 좀 늦겠다는 말을 듣고

“그런 데가 어땀어. 주인이 없다니.”

하며 올라와서 유 박사와 한훤 수작이 길었다. 그는 무척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무엇이든 잘 알아서 화제가 많았다.

그는 페니실린이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었는가를 의학 박사 유희국 씨에게 누누이 설명하고, 한국 의사들도 모르모트 연구로만

학위를 획득하려 하지 말고 좀더 자연계에 숨어 있는 그런 신비에 눈을 떠야만 될 것이라고 역설하는 것이었다.

유희국 씨는 의사다운 정결한 길다란 손가락을 각지킨 채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친구의 역설에 귀를 기울이고만 있었다.

“저이즘 보세요. 아니 부처님께 연불 가르치는 격이지.”

장명식 씨 부인이 명희를 꼭 찌르며 웃는데, 새침한 유 박사 부인까지 따라 웃었다.

일곱 시도 삼십 분이나 지났을 때 또 전령이 울리고 수염이 하나도 없는 뚱뚱한 심태훈 씨가 모시 진술 두루마기에 옥색 대님을 치고 남치마에 반회장 은색 저고리를 받쳐입고 석류잠을 꺾은 단정한 부인하고 같이 들어섰다.

심태훈 씨는 누구의 말이든지

“그렇지 그렇지.”

하고 찬동하고 너털웃음을 치는 것이 버릇이었다.

부인들 중에는 장명식 씨 부인 외에는 모두 말수가 적은 데다가 공단 같은 머리결에 자주 단기를 물려서 다정히 쪽을 찢 심 부인과 굵실굵실 지진 머리를 틀지도 않고 어깨 위에 풀어헤친 짧은 유 박사 부인과 소탈한 차림새의 중학 교사 부인은 남자들같이 어울려 놀 수가 없었다.

여덟 시가 다 되었는데도 주인과 객 한 사람이 오지를 않아 여러 사람들의 얼굴에 지루해 하는 빛이 떠돌기 시작하는데, 요란한 자동차 소리와 함께 문 앞에서 차가 머물며 전령이 높이 울렸다.

명희가 나가 보니 호위 경관에 두루말려 XX서장 김정목 씨가 유연한 태도로 거수를 한다.

“늦었지요? 아무렇게 바쁘셔서 간신히 몸을 빼시느라구.”

잔주름이 잡힌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한 서장 부인이 남편 옆에 착붙어서며 가스러진 태도로 변명이라기보다 무슨 은혜나 베푸는 듯한 어조로 인사를 한다.

객들이 다 모이고 보니 명희는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욱 민망스러웠다.

장명식 씨는 몇 번이나 시계를 들여다보고 큰 소리로 주인을 책하고, 유 박사는 말없이 잠잠히 앉아 있고 김 서장 부인은  
“간신히 시간을 만드셨는데.”

하고 남편이 푸대접이나 받는 것처럼 불만해 했다.

정순이는 여덟 시가 되자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가버리고, ‘홈 스위트 홈’을 합창하려고 나들이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던 혁이와 이나는 앉은 채 꼬박꼬박 졸고 있었다. 명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사실 지금 남편이 곧 돌아온다 할지라도 ‘스위트 홈’을 부를 흥은 이미 없었다.

낮에 것처럼 정다운 마음으로 기다리던 손들은 막상 만나고 보니 모두 싸늘한 남들이었다.

가스러진 서장 부인은 천해 보이도록 거만한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교원 부인은 남의 앞에서도 예사로 남편에게 편잔을 놓아 보기가 눈 거슬렸다. 고전적인 심 부인은 너무나 남편과는 딴 세상에 사는 것 같고 어린 유 박사 부인은 남편의 장난감 같은 느낌을 준다.

사람과 사람의 맞부딪침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이 그리워졌다.

여덟 시 십 분이 되었다. 좌중의 공기는 점점 이상해 갔다. 그 때 문전에서 자동차 클랙션 소리가 났다.

명희는 용수철에 튕겨지거나 한 것처럼 현관을 박차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도록 안타깝고 초조하여 사람이 보든 말든 그 가슴에 몸을 던지고 싶었던 것이다.

꽃향기가 찬 듯한 아름다운 밤이었다. 명희는 자동차에서 내리는 남편 옆으로 가서 그의 팔에 매달렸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네.”

그러나 남편은 애운성 있게 말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아내에게는 대답이 없고

“좀 내려와 놀다 가지.”

한다.

“아이 그만 두겠어요.”

미태를 머금은 젊은 여성의 소리다.

“왜 알지 내 비서 원재옥 양…….”

남편이 명희를 돌아보고 말하니깐 차 안의 여성은 그제서야

“안녕하셨습니다.”

하고 허리를 구부렸다.

명희는 갑자기 혀가 굳어진 것 같아 대뜸은 인사말조차 나오지를 았았으나, 차 안의 여성의 질게 화장한 얼굴이 뛰어나게 아름다운 것 만은 한눈에 알아챌 수가 있었다.

순간 그녀는 자기가 선 대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왜 좀 놀구 가지.”

하는 부드러운 남자의 말에

“그만 두겠어요.”

하고 여자는 한사코 거절하는 것이다.

“그럼 내일 나두 일찍 나갈 테지만 XX건 박씨에게 전화해 두구 명씨가 오면 기다려 달라구 해요.”

남편은, 아내는 이해할 수 없는 요건을 분부하고 차 문을 닫아 준다. 명희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움직이기 시작한 차를 멈추게 하고 문에 매달려 낮은 음성으로 무어라고 속삭였다.

회색 소프트를 쓴 그 옆모양이, 구부린 긴 다리가, 손으로 괴인 턱이, 모두 명희에게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는 것만 같았다. 차중의 여성은 내리깔았던 눈을 반짝 뜨고 생긋이

웃는다. 아리따운 입술이 약간 움직였다. 명희의 귀에 그녀의 소리 없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저두요!”

하는 소리가——

명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장이 터져서 혈액이 홍수같이 일시에 쏟아져 흐르는 것이다.

차가 떠나자 남편은 돌아서서 열쩍은 듯이 아내에게 씩 웃어 보이고 달음질쳐서 아내보다 먼저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명희는 전신의 힘이 탈진해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더 한층 떠들썩해진 응접실의 웃음 소리를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세계의 일같이 정신없이 들으며 현관 앞 어둠 속에서 있는데

“여보 여보.”

하고 자기를 찾는 남편의 소리가 차츰 커 갔다. 명희는 부르르 떨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지없이 유린된 불행한 아내의 간신히 남은 최후의 힘——아내의 자존심이, 가련한 허영심이, 그녀를 부축했던 것이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코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가 버림받은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리기가 싫었다.

그녀는 식사 준비를 하다가 나온 듯한 태도로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응접실로 들어갔다.

남편은 안락 의자 등에 기대서서 무어라고 말하고 웃었다. 웃으면 덧니가 드러나 건장한 몸집에 뜻하지 않는 애교를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다.

명희는 십 년을 동거해 온 남편을 처음 보는 사람 같은 서투름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오늘따라 더욱 듬직하고 점잖고 훌륭해 보였다. 넓은 어깨, 알맞게 살이 붙은 둥그런 몸집, 쪽 끝은 긴 다리, 능란한

담화——삼십대 한창인 남자의 풍격을 모조리 구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완만하게 생긴 얼굴도 오히려 남성적인 인상을 준다.

명희는 이제서야 어울려진 좌중에서 무서운 고행을 하는 것같이 전력을 기울여 손들을 접대하고 있었다. 머리속이 확확 타올라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데 팽팽하게 당겨진 실같이 신경이 긴장되어 손끝만 대어도 탁 끊어질 것 같았다.

이것이 질투란 것인가. 그녀는 일찍이 이 맹렬한 감정을 맛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객들이 흩어지자 남편은 곧 자리에 들었다.

명희는 아직껏 뛰는 가슴을 안고 경대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오늘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행복한 한 쌍인 자기들이 아니었던가. 아내가 바치는 것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무가치한 법인가. 남편을 위하여 청춘도 아름다움도 서슴지 않고 바친 아내에 대한 보수가 이러한 것인가. 품성의 아름다움이 그렇게도 힘이 없고 악마적인 외관의 미뿐이 모든 미덕을 물리치도록 강한 것인가.

질투란 애정의 자극제라 하지만 적어도 자기들만은 자극이 필요하도록 침체된 습관뿐인 부부 생활을 해 왔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차 안의 그 젊은 여성——남자의 마음을 끌고도 남음이 있는 자기에게서는 이미 사라진 그 매력——아내인 자기가 모르는 남편의 일을 알고 거기 협조하는 그 여성——그리고 보면 자기는 남편에 있어서는 그의 행복을 방해하는 증오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언젠가 시골서 못생기고 주책없고 뒷통맞은 박 침지 큰마누라가 그 흉칙한 얼굴에 얼쑹덜쑹하게 분을 바르고 민첩하고 체체하고 아리따운 시את을 강짜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광대들의 익살맞은 무대를 본 일이 있다. 첩이 남의 적시를 받으면서 절대적인 매력을 가진

것이라면 박 침지 큰마누라——즉 큰마누라란, 사람들의 민소(憫笑)밖에 받을 수 없는 우습고도 쑥스러운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너무나 남자란 잔인한 악마가 아닌가.

설사 남편이 이성을 잃기까지는 아니하여 표면적 파탄은 모면한다 할지라도, 다른 여성의 환상을 안고 자기에게 팔을 내미는 남편을 용납하기로는 그녀는 너무나 결백한 것이다. 그렇다고 귀여운 진이를 혁이를 이나를 두고 집을 나갈 용기는 없었다.

일루의 희망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오해가 그려 낸 악몽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자동차를 떠나 보낸 후 자기에게 보인 남편의 그 얼굴——열썩은 그 웃음——언제 증오로 변할지 모르는 남편의 양심이 보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가슴이 터질 듯했다. 순간 아내로서의 긍지도 어머니로의 기쁨도 자랑도 귀찮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창을 열었다. 물 같은 달빛이 마당에 가득 찼는데 구름 같은 수국 송이가 달빛을 안고 창백하게 웃고 있었다.

(1949. 12.)